

한전공대 적법성 감사 “되돌리기에는 무리수”

한전 1분기에만 7조7869억 적자 감사원, 전남도·나주시·한전 등 설립 과정·특혜 의혹 등 감사 광주 전남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권의 공약사업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흔들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년째 치열한 경쟁률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3일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설치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뿐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 여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의혹 ▲부영CC 전여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 한전·나주시·전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조사를 거쳐 지난달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축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정 광주시장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관여했다.

장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게시글에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그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술이진 국가 발전의 균형을 잡는, 혁신도시-에너지밸리-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축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평균 60대1 경쟁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필수 미래 기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또 "좋은 새싹을 잘라버리면서 어떻게 나라의 기능을 키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은 부디 잘못된 칼날을 들이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남도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피감기관인 만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남도 인팍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점등을 거론하며 감사가 아니라,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전력해야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8경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에너지 분야 인력을 잘 키워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우식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한전공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인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다분히 전 정부 지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작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김기현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대회에서 김기현(왼쪽) 신임 당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투표서 52.93% 득표 1위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장예찬 ... 최고위원 5명 선출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김 후보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23.37%, 전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김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하나로 뚫을 문채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입성, 울산 남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다. 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이번 경선에서 김 대표는 친연(친윤석열)계 전폭적 지지 속에 '연대와' '지지'로 눈덩이 굴리듯 세를 불려가며 지지율 급상승을 이끌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김재원(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55.16%)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55.10%(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지난해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군이 드론·무인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할 드론 작전 전담 부대를 하반기에 설립할 방침이다.

8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에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공개했는데 6개월 만에 실체가 나오는 것이다.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뜨거운 열기 투표율 광주82.6%, 전남 80.9%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200명의 조합장을 선출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광주 82.6%, 전남 80.9%를 기록했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농협 87.7%, 산림조합 45.5% 전남에선 농협 85.4%, 수협 77.8%, 산림조합 67.2% 등의 투표율을 보였다.

광주 산림조합의 투표율은 불과 45.5%를 보였는데, 44.1%를 기록한 서울 산림조합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선출된 조합장과 앞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확정 지은 광주 2곳과 전남 52곳을 포함해

당선자 200명(광주 18명, 전남 182명)의 임기는 오는 21일 시작되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조합의 살림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수사가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80건 사건 1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장 참사 20명 사상	▶6면
WBC 오늘 호주 이겨야 8강 가능	▶18면
신 팔도명물 - 천년의 맛 전주비빔밥	▶22면

제7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이유빈·장윤영·최류빈
光州日報社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